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3월 23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23.(월) 오전 10:3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3. 22.(일)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 (044-203-4320)	담 당 자	김태우 사무관 (044-203-4326)

"정부, 자동차 업계 위기 돌파 위해 모든 지원 다할 것"

-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내 완성차 업체별 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자동차산업협동조합(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별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3.23(월) 10:30~11:20, 자동차산업회관 5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 참석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장
(업계)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코리아FT 회장, 문승 (주)다성 회장, 류동엽 (주)동원테크 사장, 홍기표 융진기업 회장
(지원기관)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자 부사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힘을 합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지난 2월, **중국 와이어링하네스 공장**의 **조기 재가동**과 **국내 완성차공장**의 **조업 차질 최소화**를 위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그 결과, **당초 예정일**(2.10)보다 **조기**(2.6~2.9)에 **중국 와이어링하네스 40개 공장** 가운데 **27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고,

- **국내 완성차공장** 가동률도 2월 57% 수준에서 **3월 첫 주**부터는 **생산이 완전 정상 수준**까지 **신속히 회복**

○ 아울러, **국내 완성차 공장**과 **부품기업**의 **생산 차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공급, 재고 확보** 등을 지원 중

□ 하지만 **우리 완성차 수출**의 **69.1%, 부품 수출**의 **54.2%**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완성차 공장**과 **판매점**들이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완성차와 부품**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 (유럽 완성차공장 휴업 동향) ▲(VW) 3.23(월)부터 2~3주간 유럽내 거의 모든 공장, ▲(FCA) 3.16(월)~3.27(금)간 유럽 내 8개 공장, ▲(르노) 3.17(화)부터 프랑스 12개 공장 무기한 가동 중단, ▲(PSA) 3.16(월)~27(금) 유럽 내 15개 공장 가동 중단

○ **유럽**에서 **수입**하는 **일부 부품**들의 **수급 차질 가능성**도 있음

□ **정부**와 **완성차 업계**가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주요 부품**들의 **재고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 시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1~2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아울러,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일감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정책**(3.1~)을 시행 중

○ 이에 따라, **3월 1일~19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일평균 수출**은 **△13.5%**, **일평균 생산**도 **△8.1%**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평균 내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0.2%)

【 3.1~19일간 생산・내수・수출 비교 】

구 분	'19.3.1~19	일평균	'20.3.1~19	일평균	증감율	일평균
생 산	208,854	17,405	223,890	15,992	7.2%	△8.1%
내 수	82,775	6,898	96,367	6,883	16.4%	△0.2%
수 출	117,870	9,823	118,995	8,500	1.0%	△13.5%

□ **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이 파고를 견뎌내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현재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강조

❶ **유럽발 부품 수급 차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갈 것임

-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여 우리 업계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 통관, 수송 편의 제공** 등 **모든 지원**에 총력

❷ **자동차 산업**의 **일감 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 마련

- **신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가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차량 구매**를 **최대한 당겨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추가 내수 진작 방안 검토**

❸ **우리 부품기업**들이 **당분간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노력

- [1] 이번 **추경**을 통해 **주력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규모**를 **당초 7천억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 **기업별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 지원**

- [2] 올해 정부의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자금**('20년 3,200억원)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

- [3]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가 기업금융지원 방안** 발표 추진

□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부품업계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운영자금 대출, 기존자금 상환 유예** 등의 **과감한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또한, "사업주가 확진자 발생 등으로 **근로자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보다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

□ 성 장관은 "**산업부**는 **추가적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지원방안을 포함해 **금융 지원 대책**이 **업계**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갈 것"이며,

○ "**완성차 업계**는 **부품업체과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노사**는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우 사무관(☎ 044-203-4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모두발언

[최근 자동차산업 현황]

코로나 19가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이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은 특히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우리 완성차 수출의 69.1%, 부품 수출의 54.2%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완성차 공장과 판매점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급측면에서는
유럽 부품기업들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디젤엔진 부품, 변속기, 시스템반도체 등 유럽에서
수입하는 일부 부품들의 수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중국발 부품수급 차질을 극복하고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또 다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힘을 합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부품업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대응현황]

코로나 19 발발 이후
정부는 중국발 부품 수급차질 해소와
국내 완성차 공장의 조업 차질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당국을 설득한 결과
당초 예정일(2.10일)보다도 조기(2.6-9일)에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네스 40개 공장 중
27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 관세인하, 신속통관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부품을 신속히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완성차 공장도 조기에 가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공장과 부품기업의 생산차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공급, 재고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따라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률은
2월 57% 수준에서 3월부터는 정상가동으로
신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차질은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이제는 유럽발 부품공급 차질과
전세계 수요 위축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이 파고를 견뎌내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견뎌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첫째, 유럽발 부품공급 차질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완성차사와 함께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는 주요 부품들의 재고상황을
긴급히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1-2개월 이상의
재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여
우리 업계가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 통관, 수송편의 제공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산업의 일감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해외 수출물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수출감소의 충격을 내수로 완충할 수 있도록
신차구매시 개소세 70%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소비 진작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금년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추가적인 내수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부품기업들이
당분간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주력산업 P-CBO 공급을
당초 7천억원에서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별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금년도 자동차부품 R&D 예산 3,200억원도
상반기중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완성차사도 협력업체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태계가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완성차사와 부품기업,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와이어링 하네스 사례에서 보았듯이
부품 한 품목만 공급차질이 발생해도
전체 자동차 산업이 멈춰 서게 됩니다.

완성차사는 부품기업들에 대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노사는 합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